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공·민·생·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실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음 7월 12일) 제235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지난 9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19년 전북형 청년활동수당 '청년생생카드' 발급대상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시·군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 청년활동수당, 이렇게 쓰여요

### '청년생생카드' 발급대상자 오리엔테이션 개최

도내 청년들 한자리에 모여 사전교육 진행  
지원금 부정사용 차단·도내 사용 환급 가능  
이달부터 월 30만원 1년동안 360만원 지원  
지역경제 순환 효과·수도권으로 이탈 '부정적'

전북도는 지난 9일 오후 3시 도청 공연장에서 2019년 전북형 청년활동수당 '청년생생카드' 발급대상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청년생생카드'는 청년활동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개념 바우처형 카드로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1년 동안 매달 3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제휴카드 사용내역에서 청년활동 품목에 대해 포인트 차감 후 현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도내에서 사용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으로 최근 유사한 사업에 확산되는 지원방식이다.

이번 '청년생생카드' 오리엔테이션은 지난달 31일 확정된 사업대상자

439명이 필수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이다. 전북형 청년활동수당인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 사업공고 이후 7월 2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595명을 접수 받아 439명을 최종 선정해 7월 31일 발표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청년들이 궁금해 하는 청년생생카드 사용 방법, 시스템 사용법, 청년활동 계획서 작성법 등을 설명하고,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몇 가지 차이점을 두고 있다.

먼저 사업대상에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은 대학졸업 후 2년이 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총 300만원)을 지원

한다. 그러나 전북도는 중소기업, 농업, 문화예술 분야 1년 이상 종사하는 취업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30만원(총 360만원)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사업의 목표설정이 다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장기 미취업자의 취업의지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농업, 문화예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세 번째로 서울시 청년수당(졸업 2년 후, 총 300만원 지원)과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미취업자 구직활동 지원금(졸업 2년 이내, 총 300만원)과 비교해서 전북의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1년 동안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액이 많고(60만원) 기간이 길어 보다 장기적인 관리를 목표로 구성된 사업이다.

특히, 구직자들이 주로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취업자 구직활동 지원금(서울시, 고용노동부 등 추진) 대부분이 주로 수도권에서 사용될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 순환 효과와 수도권으로의 이탈현상에는 부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전북에 정착하고자 하는 농업, 문화예술, 중소기업 종사

저소득 청년들을 지원해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북도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상당히 특징적으로 보여진다.

한편,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구직수당, 취업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기초 지자체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에서 월 30~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도에서는 미취업자 취업지원을 위해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 등으로 1200여개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업초기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지원 및 청년생생카드 정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이 위축되거나 전북을 떠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응원하고 싶다"며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탄탄한 뿌리가 되도록 도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많지 않은 월급으로 자기개발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전북도가 청년들에게 미래를 생각할 여유를 선물한 것 같다"며 "작은 급여에도 부모님 결을 지키고 싶어 고향을 떠나지 못한 것이 후회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잘한 결정 같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비상대책반 대응 점검

도, 수출규제 긴급 점검회의  
정부 발표 소재·부품·장비 강화대책 발표 따른 대책 모색  
연구기관 연계 핵심소재  
연구개발 과제 중점 발굴 나서  
전북 관광자원 홍보 강화도

전북도는 지난 9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도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정부가 지난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 결정하고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해 수출규제 시행에 앞서 산업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선 도 7개부서와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그간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산업별 영향 및 대응 상황 점검과 중앙부처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지난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에 대해 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도내 기업이 수출규제 연구개발(R&D)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핵심 R&D과제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사업 공모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하반기 일본과의 교류가 전면 보류된 상태에서 이후 상황과 시기 등 추이에 따라 한일교류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며, 관광분야에서는 일본관광객 유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북도 관광지원 및 여행상품 홍보 등을 강화해 일본여행 계획을 변경한 국내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위기상황을 도와 유관기관,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중앙부처 및 관련산업의 동향을 서로 공유하며,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애로를 청취하여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지진 발생 시 민간시설물 피해 최소화

전주시, 내진보강 지원 추진... 30일까지 신청서 지원 가능

전주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지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시설물과 함께 민간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시·구청 재난방재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내진성능평가 비용 1건당 최대 900만원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1건당 최대 450만원을 건축물 형상에 따라 지원키로 했다.

시는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

니지만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민간건축물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보조금은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이 완료된 이후 지급되며 민간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경우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국제공제, 지진보험료 할인, 건축물·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진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으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홍철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